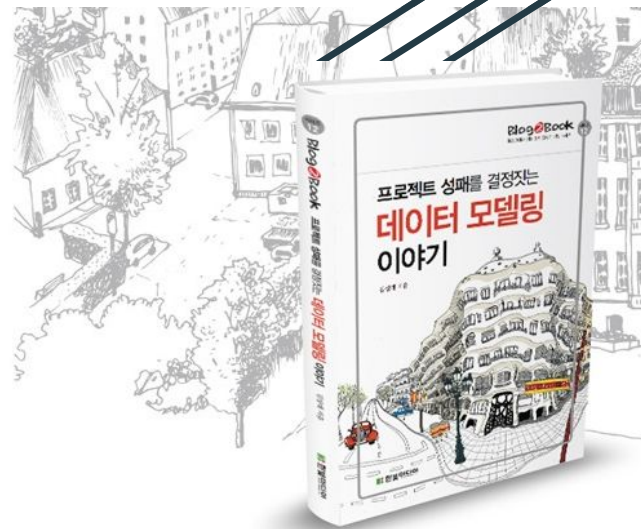


# <Blog2Book> 집필 가이드

개앞맵시(이복연)  
한빛미디어\_IT출판부



# 목차

## <Blog2Book> 시리즈 이해하기

- 대표 도서, 기획 의도, 도서 콘셉트, 목차 예시, 등장 인물

## 내 책 구성하기

- 주제 선정, 대상 독자(등장 인물) 설정, 큰 구성, 세부 구성

## 내 책 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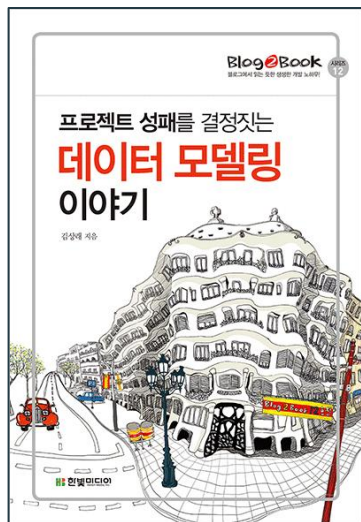
- Story(본문) 쓰기, 에피소드(& 대화) 작성, 삽화 묘사,  
두 가지 리뷰(퇴고하며...), 지은이의 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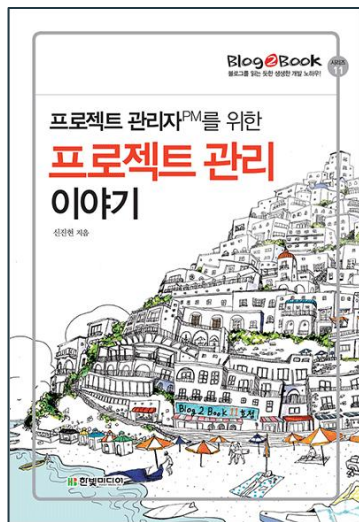
# <Blog2Book> 시리즈 이해하기

# 대표 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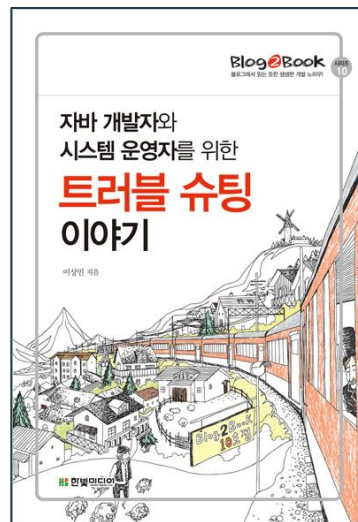
[\[모두 보러가기\]](#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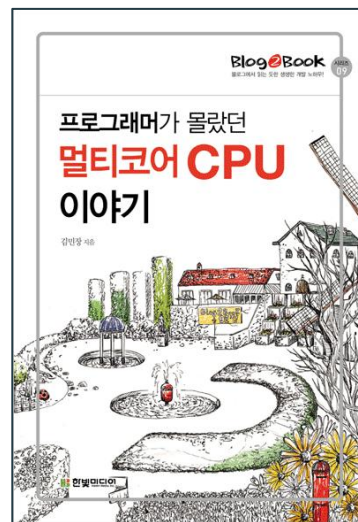
[미리보기](#)



[미리보기](#)



[미리보기](#)



[미리보기](#)

# 기획 의도

## 문제상황

- 전문서는 무겁고 딱딱해서 당장 필요한 기술이 아니면 손이 잘 가지 않는다.
- 쉽게 접할 수 있는 웹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, 단편적이라 큰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다.

## 해법

- 한 주제에 필요한 지식을 깊고 넓게 다루면서도
- 블로그 글처럼 편안히 읽을 수 있도록 캐주얼하게 꾸민다.

# 도서 콘셉트

블로그에서 바로 읽는 듯한 생생한 개발 노하우!

멘토(사수)의 입장이 되어  
아끼는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한다.

기승전결이 있는 구성으로 몰입도를 높인다.

개발 현장의 느낌을 살린 재미있는 이야기와 삽화를 곁들인다.

따스한 **멘토** 의 이야기로 이해해본다.



# 목차 예시

• 자재 서문 \_ 4

## Story 데이터 모델링은 일상 가까이 존재한다

01 초보 모델러의 막막함과 고민 \_ 17

자동차 동호회와 데이터 모델링 \_ 19

회원 영부에 녹아 있던  
데이터 모델링의 숨은 원리 \_ 22



## Story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

02 업무를 이해한다는 것과  
업무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 \_ 26

상품 주문 데이터를 이해하는  
올바른 시선 \_ 29



## Story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다

03 애플리케이션 화면과 RDB의 테이블은 다르다 \_ 33

설문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의 본질을  
읽어 모델링하다 \_ 35



## Story 데이터를 모델링한다는 것

04 디멘션 모델링 데이터의 관점을 읽어 모델링하다 \_ 41

OLTP와 OLAP의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목표 \_ 45

## Story 범주화와 추상화, 엔터티의 본질

05 범주화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 \_ 50

대학의 학사관리 이해관계자를 통한 역할의 이해 \_ 54

범주화와 추상화 \_ 57



# 등장 인물(독자와 나)

(필수는 아니지만) 독자(배우는 자)를 대표하는 인물 1명, 저자(인도하는 자)를 대표하는 인물 1명, 기타 카메오가 등장한다.

책 곳곳에서 삽화나 대화(오른쪽 참조)를 통해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상황 묘사, 새로운 주제로의 매끄러운 전환, 독자의 궁금증 해소, 재미난 에피소드 소개 등을 담당하며 독자가 책에 빠져들게 한다.



나한빛: 수석님. 현재 분석 단계인데요, 기존 테이블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.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막막하네요.



정수석: 나선임이 맡은 업무에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군.



나한빛: 네. 신규 개발이면 깔끔할 텐데,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과제라 As-Is 데이터 모델이 존재해요. 그런데 테이블이 거의 오천 개 가까이 되더라고요.



정수석: 안 그래도 나선임에게 엔터티 개념 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알려주려던 것이 바로 그 질문과 관련된 주제인데, 우리 뭔가 통했나 보다.



나한빛: 와우, 수석님. 오늘은 더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겠네요.





# 내 책 구성하기

# 주제 선정

이해와 통찰을 안겨주는 주제가 좋다.

단순 따라하기, 예제집, 실습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면 대부분 가능하다.

- 개발 현장의 이야기
  - 개발 문화, 프로세스, DevOps, 기획/제안
- 노하우 전수
  - 패턴/설계, 모델링, 최적화, 마이그레이션
- IT 에세이

[\[기존 도서들 참조\]](#)

# 대상 독자(& 등장 인물) 설정

## 등장 인물 예시

- 주인공(필수) - 주 독자층을 대표
- 멘토(필수) - 노하우 전수자
- 카메오(선택)

## 주인공과 멘토의 관계 예시

- 기억에 남는 후배(부사수)와 나
- 과거의 나와 은혜를 입은 선배(사수)
-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

## 성격 규정 팁

- 주변 인물 중 특정인을 대입
- 특히 주 독자층은 대표하는 주인공은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해봐도 좋다.

★ 인물들 성격이 무색무취면 재미가 없고, 일관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.

★ 주인공 성격을 잘 규정해두면, 책 내용을 독자 관점에서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.

# 큰 구성

이야기 중심이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자유롭다. 예컨대 기승전결을 두어 주인공(독자)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.

- (기) 주인공이 책 주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계기를 보여준다.
  - 스토리 01
- (승) 기초 과정. 쉽게 시작하지만, 한 차례 벽에 부딪히거나 더 깊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다.
  - 스토리 02 ~ 04
- (전) 고급 과정. 주인공을 저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.
  - 스토리 05 ~ 10
- (결) 한 단계 성장한 주인공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, 더 나아가야 할 길, 에필로그, 혹은 흐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한다.
  - 스토리 11 ~ 12

# 세부 구성

각 Story와 절의 제목을 짓는다.

이렇게 완성한 목차만으로 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, 무엇을 배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.

Story 하나의 세부 구성은 자유롭다. 일관되기만 하면 된다. 오른쪽은 『고객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제안서와 창의적인 제안팀 이야기』에서 발췌한 예다.

- **Story 02. 수주하고 싶다면? 수주할 만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답**
  - 지금 하는 제안, 이길 수 있는 제안인가를 따져라
  - 지금 하는 제안, 돈은 되는 제안인가를 따져라
  - 꼭 참여해야 한다면 이길 승률을 높여 참여하라
  - **필자의 이야기**
  - **정도만씨의 비법노트 1. 사업참여결정표**



# 내 책 쓰기

# Story(본문) 쓰기

다루는 주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형식을 찾아야 한다. [기존 문서들](#)과 읽기 편했던 다른 책을 참고하자.

예컨대 에세이처럼 이야기를 쭉~ 서술하거나, 아키텍처/설계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동작 방식을 설명하거나, 두 소스 코드의 차이를 비교해줄 수도 있다.

책을 쓴다는 생각보다는, 내 노하우를 사랑하는 동료/후배에게 전수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친절히 적어보자.

블로그 글을 쓰듯 부담 없이, 무엇보다 '내 개성이 묻어나게' 써보자.

# 에피소드(& 대화) 작성

## 주요 역할(효과)

1. 뒤이어 다룰 내용이 중요한 이유 상기
2. 줄곧 딱딱한 내용만 다뤄 독자가 지칠 것 같을 때 쉬어가기
3. 주제 전환 사이의 쉬어가기
4. 핵심 내용을 강조, 각인
5. 주제 관련 알아두면 유용한 일화(사례)

## 작성 요령

- 실제 겪은 일을 각색해본다.
- 상황 묘사와 인물 간 대화를 적절히 버무린다.
- 해당 주제로 다른 사람과 실제로 대화해본 후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.



# 삽화 묘사

삽화는 전문 삽화가가 그려준다.

원고 중 삽화가 들어갈 '위치'에 어떤 삽화가 필요한지 '묘사'하자. (오른쪽 참조)

<삽화>정수석이 회의실 칠판 앞에서 "...이러한 사고방식과 안목을 키워야 해!!"라며 강의하듯 말하는 장면</삽화>



# 두 가지 리뷰(퇴고하며...)

## 주인공 시점

- 난이도는 적절한가?
- 이야기 흐름은 적절한가?
- 더 궁금한 것은 없는가?
- 실무에 도움이 되는가?
-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나겠는가?

주변 후배들에게 리뷰를 부탁해보자.

## 멘토 시점

-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담았는가?
- 더 쉽게 설명할 순 없었나?
-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나?
- 믿음직한 후배로 성장하겠는가?

주변 동료, 선배 들에게 리뷰를 부탁해보자.

# 지은이의 말

독자와의 첫 인사 겸 에필로그 성격이다.

신변잡기나 퇴고까지의 어려움만 늘어놓기보다는 독자가 이 책을 한번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내용이 좋다. 예컨대 멘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도 좋다.

-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읽어주면 좋겠는가?
-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(독자가 공감할 만한) 계기(사건)는 무엇인가?

너무 약을 팔진 말고 진솔한 이야기로...